



코스피 2343.07 (0.00)	코스닥 822.27 (0.00)
금리 (국고채 3년) 2.01 (0.00)	환율 (원/달러) 1109.30 (-3.20) (9.28)



글로벌 초일류기업의 질주... 매일 1900억씩 돈 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7조... 최고치 또 경신

(추정치)

매출 65조 전년비 48% ↑ 반도체·디스플레이 호조 창사 이래 최대실적 견인 4분기에도 실적개선에 예고



서울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에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5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견조한 반도체 수요와 더불어 디스플레이 부문의 실적호조를 바탕으로 눈에 띄는 실적이 예상된다. 연간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실적을 바라보는 금융투자업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3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매출액 65조572억원, 영업이익 17조206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8%, 18.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3분기 실적호조를 이끈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다.

◆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예고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3분기 영업이익은 계절적 성수기와 평택공장 증설 효과로 전분기보다 1조6450억원 증가한 13조25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률(ROE) 역시 전 분기(52.8%)보다 개

선된 53.4%에 달할 전망이다. 1000원어치를 팔면 530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뜻이다.

또 애플(Apple)로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급과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반등 수혜로 디스플레이 부문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8160억원 늘어난 9560억원을 기록하면서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디스플레이 부문 ROE는 전 분기 2.5%에서 10.1% 수준으로 크게 개선됐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러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급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디램(DRAM)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4분기에서도 D램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고, 최근 저렴해진 낸드(NAND),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등 제품 가격으로 수요가

<주요 증권사 별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전망치>

	2018년 3분기(E)	2018년(E)	2019년(E)
신한금융투자	17조1900억원	64조7528억원	67조1644억원
한국투자증권	17조930억원	63조5200억원	53조2880억원
현대차증권	17조1080억원	64조880억원	65조4730억원
NH투자증권	17조1580억원	64조4170억원	65조4750억원
미래에셋대우	17조1700억원	64조5320억원	64조5660억원

/각 사 보고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어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6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올해 한국에 내는 법인세만 10조원을 훌쩍 넘긴 1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이미 올 상반기 삼성전자는 한국에 6조1331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 실적전망은 엇갈려

올해 삼성전자는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 전망에 이견이 없다. 다만 내년 삼성전자 실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올해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을 예상하는 증권사가 있는 반면 영업이익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는 증권사 보고서도 나왔다. 핵심은 반도체 가격이다.

우선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은 삼성전자 이익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봤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에도 타이트한 D램 수급이 지속되고, 낸드 가격 하락폭도 축소될 것"이라면서 "과거 사이클(Cycle)과 전혀 다른 반도체 실적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 전망치보다 3.7% 늘어난 67조1644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DB금융투자 등은 내년 실적 전망치를 올해보다 낮게 잡았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스펙 상향에도 불구하고 부품원가 상승을 충분히 가격인상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기대보다 D램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4분기부터 반도체부문 영업이익이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내년 영업이익은 53조288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실적 전망치보다 16.1% 줄어든 수준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스타트업 설명듣는 김용범 부위원장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청년스타트업 거리축제 'IF 2018'을 방문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오른쪽부터),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스타트업 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망중립성·제로레이팅 5G시대 맞게 정책 수정

5G 통신정책협의회 첫 회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의 통신정책에서 망중립성 완화와 제로레이팅 도입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5G 통신정책 협의회의 제1소위가 9월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두고 정부와 통신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패스트레인 등 민감한 주제가 논의됐다.

망중립성이란 통신망을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도 차단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규칙이다.

회의에서는 현행 망중립성을 유지하거나 법제화를 통해 강화하자는 의견과, 5G서비스에 대해서는 망중립성의 예외인 관리형 서비스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의견이 맞섰다.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는 하지 않되 불공정행위 발생시 사후규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특정 사업자 콘텐츠의 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로레이팅 허용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실에서 전상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통사가 자회사 등을 통해 자사 콘텐츠를 제로레이팅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발제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 7개월동안 논의할 소주제를 정리해 다음 회의때 확정하며 그 순서대로 앞으로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활동가는 "5G네트워크도 인터넷에 연결될 경우에는 최선형(Best-Effort) 망일 수밖에 없어 망중립성을 바꿀 이유가 없다"면서 "망중립성으로 인해 5G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거가 필요하며 '패스트레인'을 위한 별도 대가 요구시 중소 콘텐츠 제공자(CP)에 불리하다. 자사 및 배타적 제로레이팅은 불공정 행위시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안병도 기자 catchrod@

韓美 실업률 역전 초읽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고용개선 흐름을 타지 못하면서 올해 2분기 한미 실업률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 최소 수준으로 좁혀졌다. 글로벌 경기 개선 추세에서 소외된 한국 경제 상황이 고용시장에서도 뚜렷하게 감지되는 모습이다.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실업률은 1년 전과 같은 3.8%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실업률은 3%대 초반을 유지했지만 2015년 이후 조선 등 산업 구조 조정 영향으로 상승해 3%대 후반을 맴돌고 있다.

반면, 올해 2분기 미국의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p나 낮은 3.9%를 기록했다. 2000년 4분기(3.9%)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 격차는 0.1%p까지 좁혀졌다. <3면에 계속>

/세종=최신용 기자

매달 113만명 '실업자 신세'

1999년 이래 최대 기록 실업급여도 4.5조 돌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실업자가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1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4조5000억원을 넘어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14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9017억원(25.0%) 많았다.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772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작년 1년간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2425억원으로 전년보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3471억원(7.1%) 많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인상률과 엇비슷한 비율로 늘었는데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25.0%)이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훨씬 웃돌았다.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용 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2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약 36만1000명(2.8%) 늘었다.

한편, 고용 상황은 기록적으로 악화했다.

올해 1~8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2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1999년 6월부터 현행 기준(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실업자 수 통계를 작성했는데 1~8월 평균 실업자 수는 올해가 가장 많았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그 하한액이 작년 4만6584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만4216원으로 역시 16.4% 올랐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